

## 경기도 중·고등학생 교복 표준디자인을 위한 연구

최수아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패션산업디자인과 조교수

### 요약

2013년 기준 국내 95%이상 수도권지역 97%가량의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착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복 구매 방식에 따른 가격차와 교복브랜드 선호에 따라 발생하는 차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교복디자인과 소재 사용에 대한 제한, 다양성의 부재 등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교육부는 입찰을 통한 공동구매의 확산, 생산자 학교 간 직거래 방식, 온라인 판매방식 등의 유통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교복가격상한제, 교복 디자인 표준화, 간편 교복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복의 변천과정, 교복현황, 구매현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경기교육청이 실시한 교복 표준 디자인 제안을 위한 설문을 참고로 디자인이 개발 되었다. 교복 표준 디자인 제안을 위한 설문은 경기지역의 지역별 중학교 1개와 고등학교 1개를 선정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일반적 인적 현황, 현행 교복 현황, 교복 표준 디자인 개발 관련하여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학교 공동구매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4%가 '그렇다'라고 하였고 36%가 '모른다'고 말했다. 교복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소재(37%), 디자인(24%), 가격(21%), 맞춤새(8%), 브랜드(5%), 색상(3%) 순이다. 선호 교복 브랜드는 검정브랜드교복 구매이유는 품질(33%), 디자인(20%), 소재(18%), 유행(10%), 서비스(9%), 맞춤새(6%), 가격(4%)이었다. 교복이 브랜드의 경우 기타브랜드 30%, 스마트 24%, 아이비 21%, 스쿨룩스(12%)로 나타났다. 기타 교복을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75%), 품질(11%), 디자인(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준디자인의 중요 요소로는 활동성(24%), 디자인(22%), 품질(20%), 소재(16%)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선호디자인 형태로는 캐주얼의 단색(25%)과 배색(20%)의 선택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는 단색 준정장(13%), 배색 준정장(11%) 순서이다. 무늬 선호도는 45%가 무늬 없음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는 체크무늬(38%), 줄무늬(9%), 뽕뽕이 무늬(5%), 기하학무늬(3%)를 차례로 선호했다. 교복 표준 디자인 구매의사는 40%가 '구매의사 있다'라고 답했고, 38%가 보통, 22%가 '구매의사 없다'라고 답했다. 현재 일반트렌드와 교복트렌드를 고려함과 동시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교복 디자인이 진행되었으며, 개발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 교복, 교복디자인, 표준디자인, 중고등학생

본 논문은 경기도 교육청의 중·고등부 남녀 교복 표준 디자인 개발 사업'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포함함.

접수일: 2015년 5월 1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5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21일

교신저자: 최수아, soahc@gmail.com

## I. 서론

학생 교복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신분을 나타냄과 동시에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집단 내 동료들 간의 동질감을 갖게 하는 매개체이다. 국내에서 교복을 최초로 입기 시작한 1886년부터 1970년대까지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은 일반화되었다. 1983년도에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으나, 2년 만에 복장자율화 보완조치를 통해 교복과 자유복 중 선택이 가능해졌다. 오늘날까지 많은 학교에서 교외 생활지도와 탈선행위,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게 된다는 점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생들이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패션 산업은 빠른 성장 속도로 현재에 이르렀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sup>1)</sup> 국내 교복 산업은 역사와 시장의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유통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2013년 5월 기준 전국의 95.6%의 중·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sup>2)</sup>을 하여 교복시장의 규모는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업계의 다양한 유통구조에 따른 가격 편차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주요맹점은 교복의 구입가가 개별구매와 공동구매 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현실이다. 개별 구매 방식이 공동구매 보다 평균 25.6%나 더 비싸고 지역에 따라 가장 크게는 78.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공동구매 방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최대 65.8%나 차이가 났다. 또한 1990년대 교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대기업들은 맞음새(핏:Fit)감을 중시하며 기존의 점유 중소기업과 차별화를 주었다. 스타를 통한 광고와 대중매체를 통해 교복시장에 트렌드가 생겨나고 이를 쫓아 교복을 변형하는 사례도 늘었다.<sup>3)</sup>

교복 관련 선행연구로는 교복 표준화를 위한 소비자 구매 실태 연구<sup>4)</sup>, 교복착용태도 혹은 실태와 선호도 혹은 만족도에 관한 연구<sup>5)6)7)8)9)10)11)</sup>,

교복변형행동과 치수 맞춤새 관련 연구<sup>12)</sup>, 부분자율화<sup>13)</sup>와 디자인관련 연구<sup>14)15)16)17)</sup>가 있다. 하지만 교복 표준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시기상 아직 부진하여 본 연구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교복의 변화에 흐름을 고찰하고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적인 교복 표준 디자인 개발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에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 교복의 변천과정과 교복의 특성을 서적 및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국내 교복의 구매 현황을 관련 자료를 통해 고찰한다. 또한, 교복 표준디자인 개발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설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디자인을 기획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디자인 및 샘플개발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중·고등학교 교복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의 일환이다.<sup>18)</sup> 또한, 교복 표준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진행 중 직면한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국내 교복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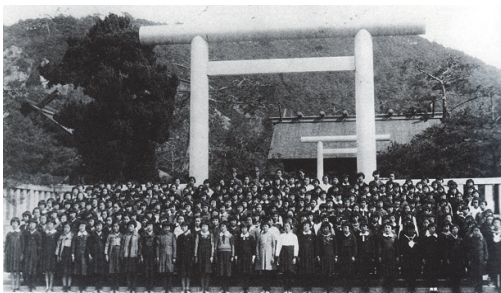
국내 중·고등학교 교복은 개화기에 학교가 설립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생(儒生)들이 통일되게 입던 차림에서 교복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서양식의 교복 착용 개념이 시작된 것은 개화기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당(學堂)에서 부터였다. 미국 선교사 H.G. Appenzeller가 1898년 배재학당에서 당복(堂服)을 제정하여 입힌 것이 우리나라 남성 교복의 시초이다.<sup>19)</sup> 앞자락, 단과 소매 끝, 바지 좌우의 길 술기에 청, 홍선을 두 줄로 넣은 검정색의 양복 형태였으며, 제모에도 청, 홍선을 둘렀다.<sup>20)</sup> <그림 1>은 1935년 당시 배재고등학교의 교복의

모습으로 당시의 일반화된 디자인이다. 최초의 여학생 교복은 1886년 제정된 이화학당의 교복으로 국내 교복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 교복은 일상복의 무명 치마와 저고리 형태로 색상을 다홍색으로 상하 통일한 것이 특색이다. 또 다른 점은 머리를 두 갈래로 땋거나 트레머리를 하여 땋기머리와 차별되었다. 외출 시 쓰개치마나 장옷을 썼으며, 겨울철에는 갓 저고리를 덧입거나 솜두루마기를 입었다.<sup>21)</sup>



<그림 1> 배재고등학교 교복, 1935  
(출처: 최덕식 개인소장)

<그림 2>는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건립했던 조선신궁<sup>22)</sup>에서 1943년에 개최된 고등학교 입학식 장면이다. 당시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림 2> 고등학교 입학식 장면, 1943년  
(출처: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2007, p.94)

교복과 개량한복을 착용한 학생들을 볼 수 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는 교복의 형태가 한복에서 양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sup>23)</sup> 남학생들의 교복이 먼저 서양복식 형태로 정착되었고, 1930년대에는 여학생들도 양장화 된 교복을 많이 입기 시작했다<그림 3>. 당시에는 주로 여름교복으로 흰색 블라우스에 감색 주름치마를 겨울에는 감색 또는 자주색 세일러복을 입었으나, 간혹 송의학교 등에서 여름에 모시와 겨울에 양장지로 만든 한복을 교복으로 착용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1940년대에는 여학생들도 전시복 차림의 교복을 입게 되었다. 여름에는 블라우스에 바지나 몸빼바지<sup>24)</sup>를 입고, 겨울에는 재킷에 몸빼를 입었고, 남학생들은 국방색 교복을 입었다. 1945년 해방이후 교복체계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은 주로 상하 검정색 혹은 짙은 감색의 교복을 입었다<그림 4>. 1968년까지는 중·고등학교 학교별로 교복의 특성을 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68년에는 시·도별로 문교부의 평준화시책으로 교복의 디자인(교복, 교모, 모표)이 통일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단추나 모자를 포함한 획일화된 교복을 시·도별로 입게 되었다.

1982년 두발 자율화가 시작되었다. 이어 1983년에는 찬반속에 문교부의 정책으로 두발과 옷차림



<그림 3> 배화여자고등학교 양장교복, 1943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MediaPop>)



<그림 4> 서울정화여자중학교  
동·하복, 1958  
(출처: 전선희 개인 소장)



<그림 5> 서울신화예술중학교  
동·하복, 1990  
(출처: 저자 개인 소장)



<그림 6> 서울경문고등학교  
동복, 1993년  
(출처: 양재홍 개인 소장)

의 규제가 있었지만 교복자율화<sup>25)</sup>가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자율적인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만 존재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사복을 구입해야 해서 발생하는 지출의 증가, 빈부의 차가 두드러지게 된다는 점, 학생신분의 구분이 어렵고 소속감 결여와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이에 1986년 2학기를 기점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착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점차 교복디자인은 다양해지고 교복에도 트렌드가 반영되었다. 종래의 교복이 소속감과 동시에 통제의 역할을 했다면, 최근의 교복은 소속감과 동시에 심미성과 기능성이 더해졌다.<sup>26)</sup> <그림 5>는 1990년의 서울의 한 중학교 교복의 동·하복디자인이다. <그림 6>은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형태의 교복 착용이 가능한 1993년 남자 고등학교의 교복 착장 형태이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까지는 교복보다 사복을 입는 학교가 더 많았으나, 1990년 교육부에서 교복착용을 권장하면서 전국의 교복 착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부가 2013년 4월에 조사한 결과<sup>27)</sup>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복착용률은 전국 평균 95.6%에 이르렀다.

## 2. 교복의 목적 및 특성

교복(校服/School Uniform)은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혹은 통학할 때 입도록 학교에서 제정한 제복<sup>28)</sup>이다. 교복의 착용은 단체생활을 원활히 하고 면학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며 신분을 나타냄과 동시에 소속감과 유대감을 불러일으킨다.<sup>29)</sup> 교복의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나폴레옹이 유사시 학생들을 군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통일된 옷을 입힌 것을 최초의 교복 형태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영국의 이튼 칼리지에서 입혀진 파란색이나 빨강색의 재킷에 흰색 플랫폼화(이튼칼라)가 달린 셔츠에 재킷과 같은 넥타이를 매고 조끼를 입은 것이 실질적 교복의 시작이다. 여기에 줄무늬바지를 입고 높이가 높은 실크햇(Silk hat / 이튼햇)을 썼다. 이를 시작으로 서양 각국에서 교복을 입었고, 미국에서 유럽풍 교육을 추종하는 명문 사립학교에서 주로 입으며 현재까지 이어졌다.<sup>30)</sup>

교복을 착용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시기여서 교복디자인의 차별성, 심미성, 맞춤새, 유행성 등에 대해 물리적·심리적 관여도가 높다. 이에 교복의 디자인 혹은 맞



음새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경우 변형시키는 행동들로 나타나며, 당시 다른 학생들에게 선호되는 스타일을 따르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은 동일한 디자인의 교복을 3년 동안이나 입기 때문에 현재의 트렌드와 심미적인 측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교복에 대한 불만족이 클 것이다.<sup>31)</sup> Horn은 청소년기에 정신적 신체적 발달로 자아개념이 불안정하며 자신이 없는 시기로 신체성장이 본인과 비슷한 동년배들과 유사하지 않을 경우 고민하게 된다고 언급했다.<sup>32)</sup> 외모관리나 의복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또래집단의 동년배들과 유사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이상기온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한국의 경우 여름·겨울이 길어지고 봄·가을은 짧아지고 있다. 또한, 냉·온 난방이 잘되어 있어 이러한 바뀐 기후조건에 맞도록 교복의 소재도 변화해야 한다. 3년 내내 매일 입는 교복이기 때문에 세탁에 강하며 내구성이 좋은 소재의 사용이 요구된다. 더위 조절이 잘되어 땀 배출이 좋은 기능성 소재와 활동이 용이한 신축성 있는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디자인아이템도 여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반바지를 착용하게 하고, 그 외로도 캐주얼한 피케(Pique)나 저지(Jersey)류의 폴로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생활복도 편리성의 목적을 위해 많은 학교에서 하복을 대체해서 입기도 한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교복디자인의 목적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학생교복은 각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학생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지니며, 착용자(학생들)조차 또래들의 동년배와 유사한 스타일을 추구하고자한다. 동시에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교복의 세부적인 부분과 맞음새 등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교복 착용시간이 길고 오랜 기간 동안 입어야하기 때문에 교복의

기능적 측면의 발전이 중요하다. 종래의 교복은 어떤 소속감이나 통제성을 강하게 나타냈다면 최근의 교복은 소속감과 함께 심미성이나 기능성 등을 더 고려해야 한다.<sup>33)</sup> 즉 이러한 교복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복 디자인은 소속감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심미성, 편리성, 기능성을 골고루 갖춰야 하겠다.

### III. 국내 교복 현황 및 조사

#### 1. 국내 교복 현황

대구를 소재로 한 중·고등학교의 교복 품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이 2.74%, 고등학생이 2.96%가 만족하지 않았으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욱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품목 중 동복(재킷)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컸고, 동복(블라우스, 셔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중·고생의 교복착용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학생의 50.5%가 ‘학교생활에서만 착용한다’라고 답했으며, 44.7%가 ‘학교생활 및 학원갈 때 착용한다’라고 답했다. ‘교복의 변형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6%, ‘변형 경험이 없는 경우’는 53.4%로 근소한 차이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변형경험이 많았으며 주로 디자인이나 사이즈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학생들은 교복디자인의 모던이미지(34.2%)를, 교사는 단정한 이미지(54.1%)를 가장 선호했다. 부분자율화는 학생의 78.9%와 교사의 41.2%가 찬성했다. 자율적 선택을 하고 싶은 교복품목은 교사와 학생 모두 ‘셔츠’와 ‘넥타이’ 순으로 선택하였고, 재킷은 통일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단 학생들은 통일성 부여 부분을 디자인으로 선택하고, 교사들은 색상을 통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sup>34)</sup> 김하영(2012)<sup>35)</sup>의 2012년에 실

시된 교복착용 태도와 교복 만족도에 대한 조사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남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421부)연구이다. 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개성, 심미성, 경제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의복추구혜택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과 경기도 거주 학생 모두 개성, 심미성, 실용성을 추구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명상표와 경제성 추구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교복변형은 여학생이 더 많이 경험했으며 교복변형에 대해 성별과 무관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복 변형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며, 자신의 매력을 더 발산시키기 위한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연구자는 언급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지역의 학생들은 서울지역 학생보다 교복에 대한 찬성도와 만족도가 높았지만, 변형의 경험이나 변형의 의지 또한 높았다.

2014년 7월 온라인<sup>36)</sup>을 통해 국내·외 교복디자인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국내 경기 교복 디자인에서 중학교 교복에서 체크원단의 사용이 많이 보였고, 체크무늬는 투톤정도의 격자 모양의 체크가 많았다. 컬러로는 남색, 밤색, 그 외로 붉은 계열이 많이 있다. 반대로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단색의 원단이 많이 사용되었다. 깔끔한 디자인의 1개 이상의 주름 A라인 스커트에 주로 남색, 짙은 회색, 붉은색 계열의 컬러가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별 교복소재 및 디자인 효율성조사는 경기 지역의 1,056개의 중·고등학교를 대상<sup>37)</sup>으로 실시되었다. 문항은 남자·여자 하복의 반바지 착용 여부, 소재, 상의색상, 하의색상, 남자 동복의 조끼 착용여부, 소재, 상의색상, 하의색상, 여자 동복의 조끼 착용여부, 소재, 상의색상, 하의색상과 더불어 바지 착용 여부가 조사되었다. 남자 하복의 경우 반바지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소재는 물세탁이 용이하면서 내구성이 좋은 폴리 에스테르, 나일론, 레이온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 외로도 울, 모, 면, 마, 폴리에탄, 스판 혼방이나 쿨론이나 쿨맥스 같은 기능성 원단이 사용된다. 상의색상은 주로 흰색이 연보라, 곤색, 밤색, 곤색, 회색, 진회색, 카키, 베이지, 체크나 검정 등이 있었다. 동복 소재는 모, 울,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면, 레이온, 폴리에탄, 비스코스, 스판 등이 사용되었으며 캐시미어가 사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상의색상은 짙은 회색, 흰색, 베이지, 검정색, 녹색, 갈색 그 외로 연분홍색, 진밤색, 와인색, 하늘색, 진카키색, 진보라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하의는 곤색, 짙은 회색, 검정색, 체크, 밤색, 베이지, 검정색, 자주색, 곤색, 회색, 분홍색과 체크가 사용되었다. 남자·여자 동복에는 대부분 조끼를 입었고, 여자 동복 바지는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재 국내 교복 시장 규모는 연간 5,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중·고등학생은 약 400만 명이다. 김중래<sup>38)</sup>는 이정도 규모라면 교복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회복시키고, 교복 업체는 자유경쟁을 통해 질 좋은 교복을 싼값에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교복 구매 현황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도 4월 전국 중·고교(5,516교)를 대상으로 한 ‘2013년 신입생 교복(동복) 구매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률은 전국 평균 95.6%에 달했다. 이 중 서울은 97.9%, 경기지역은 97.4%의 중·고등학교가 교복을 착용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복 구매에 있어 개별구매 방식(250,845원)으로 구매하는 경우 공동구매 방식(199,689원)에 비하여 평균 25.6%(51,156원) 정도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광주에서의 개별구매(28만 8천원)의 경우 공동구매(16만 1천원)에 비해 78.9%(12만 7천원)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구매는 지역 차이도 커서, 최대 65.8%(10만 6천원)나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 광주·전북 공동구매가 16만 1천원이지만 세종 공동구매가 26만 7천원이었다.<sup>39)</sup> 이 조사는 국내교복의 공동구매와 개별구매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최초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공동구매의 전국평균이 겨우 47.3% 수준에 불과하여 교육청은 공동구매 확산 방안, 최저가격 입찰을 통해 학교가 일괄 구매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교복 출고가 공개, 교복 생산자와 학교 간 직거래 방식 도입, 온라인 판매 방식 도입 등의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교복가격 상한제, 교복 디자인 표준화, 간편 교복(여름철 간소복 등)의 대책<sup>40)</sup>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구매 운영 요령」안내」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교복가격 상한선을 권고하였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상반기 기준 권고가격을 동복 4피스(pcs)에 203,084원<sup>41)</sup>(참고: 2013년 동복 개별구매 가격 평균 250,845원)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2014년 여름 교복 상한선을 79,225원으로 17개의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이는 학교정보 공시자료에서 공표된 하복 공동구매 전국 평균가격(77,901원)에 전해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7%)를 반영한 것이다.<sup>42)</sup> 「교복 구매 운영 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도교육청별 교복 표준 디자인 선정 및 활용, 2) 교복 구매 가격 상한제 실시, 3) 학부모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시장조사, 기초금액 설정·최소 품질 기준마련 및 입찰 진행, 교복 업체에 대한 평가·인증 지원, 4) 초 6·중 3 예비 신입생공과 적극적 행정지도 추진, 5) 국·공립학교에서 교복 디자인 사전 공개, 사립학교의 경우

도 적극권장, 6)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라 교복 구매 직접주관 외로도 일선 학교에서 생활복 활용 등 교복 간소화를 추진하여 교복, 생활교복 등을 중복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학교규칙에 복장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등을 통해 교복 가격이 안정화되고 학부모의 교복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sup>43)</sup> 2014년 초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각 시도교육청 교복(동복) 상한가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201,076원으로 안정적인 가격대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sup>44)</sup>

현재 국내 교복 선호브랜드이자 7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브랜드는 4개사로 스마트, 아이비, 엘리트, 스쿨룩스가 있다. 소재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수차례의 세탁에도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내구성이 좋고, 활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판(span)이 함유되며 여름엔 낮은 피부온을 위해 시원한 P/R(상의)과 P/W(하의)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와 더불어 교복 제작업체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특히 브랜드 교복은 허리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부자재와 착용의 편의를 위한 부자재 및 브랜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장식용 부자재가 사용된다. 브랜드교복은 바지의 금속장식, 주머니 달개, 외투안감의 색상, 소매의 마감처리, 라벨 위치 등<sup>45)</sup>에서 차별성을 주고 있다.

2014년 2월 17일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서 ‘교복 공공재 서비스 간담회’가 개최되어 패션관련 교육계, 관련업계와 전문가와 수십명의 학부모가 현교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싸고 불편한 점을 뽑았다. 교복가격의 거품의 이유를 대기업의 물량공세와 마케팅(연예인을 통한 마케팅 포함)의 영향의 탓으로 지적했으며, 딱 끼는 교복으로 인해 학생들의 체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들이 언급되었다. 또한, 교복이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일반적인 의류 유통방식 시스템으로 팔고 있다.<sup>46)</sup> 리테일

회사의 무료수선서비스, 홍보 등 브랜드 교복의 가격대는 최근 청소년들의 교복 착장 스타일이 몸에 딱 맞고, 치마 길이도 짧게 입는 것을 선호하며, 빠른 성장으로 교복을 재 구매해야 할 때도 있다. 이로 인해 높은 가격과 교복디자인의 형태와 소재로 인해 활동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교복의 공동구매율은 2006년 7.1%, 2007년 17.8%, 2008년 25.4%로 점차 높아졌다.<sup>47)</sup> 2013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전국 기준 교복을 입는 5,275개교(95.6%)중 2,496개교(47.3%)가 동북 교복 공동구매를 채택하였다. 세부적으로 서울의 685개교 중 602개교(87.9%), 경기의 1,019개교 중 799개교(78.4%)가 공동구매를 채택하였다. 그 외로는 대전 64.4%, 인천 51.6%, 전북 44.4%, 광주 43.2%, 울산 40.7%, 경남 34.4%, 경북 34.2%, 전남 31.1%, 충남 21.2%, 충북 20.6%, 강원 16.1%, 부산 10.8%, 대구 9.5%, 세종 7.1%, 제주 5.6%등의 순으로 공동구매를 채택했다.<sup>48)</sup>

### 3. 교복 표준디자인 제안을 위한 설문 조사

경기지역의 지역별 중학교1개와 고등학교1개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 10명의 학부모, 학생, 교사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최종 440명이 이에 응하였다. 그중 부족한 자료를 제외한 436개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설문은 2014. 7. 10~7. 21에 진행<sup>49)</sup>되었다. 고등학교 220명 중학교에서 220명, 성별로는 남자 152명(고:83, 중:69), 여자 288명(고:137, 중:151)이 설문에 응했다. 총 440명의 응답자 중 154명(고:88/중:66)이 학생, 153명이 교직원(고:65, 중:88), 133명(고:67, 중:66)이 학부모이다. 본 설문의 목적은 2014년 경기 교복 표준디자인 제안을 위한 것으로 교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용하고자 하였다. '교복표준디자인 제안'이란 학교 교복의 자율적인 디자인 선택은 유지하되 디자인의 개발 및 그에 따른 가격과 품질 면에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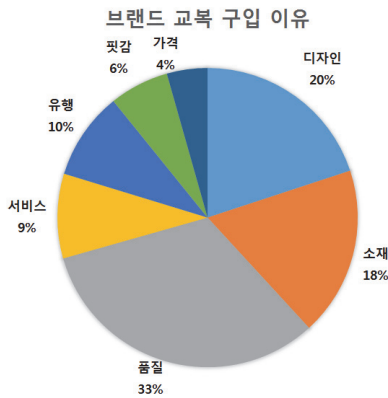
균적으로 우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도입되고자 한다. 본 설문이 진행되었다. 설문문의 내용은 크게 1) 일반적 인적 현황, 2) 현황 교복 현황, 3) 교복표준디자인 개발 관련으로 24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①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4%가 알고 있고, 36%가 모른다고 답했다. ② 교복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소재 37%, 디자인 24%, 가격 21%, 맞춤새 8%, 브랜드 5%, 색상 3%, 유행 2%의 순서로 나타났다. ③ 구매한 교복이 브랜드인 경우 기타브랜드 30%, 스마트 24%, 아이비 21%, 엘리트 13%, 스콜룩스 12%의 순서였다. ④ 기타 브랜드로는 미치코런던, 세인트스코트, 충남모직, 공동구매(프리모), 아이니가 있다. ⑤ 브랜드교복을 구입하는 이유는 품질 33%, 디자인 20%, 소재 18%, 유행 10%, 서비스 9%, 맞춤새 6%, 가격 4%로 나타났다<그림 7>. ⑥ 기타 교복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품질 11%, 디자인-6%, 서비스 3%, 유행과 소재는 동일하게 2%, 맞춤새 1%로 조사되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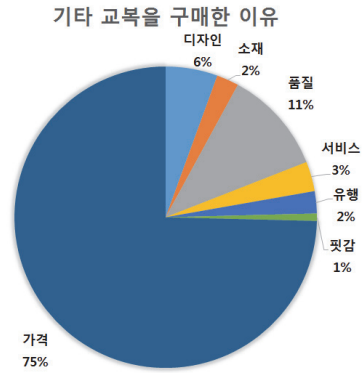
⑦ 교복의 만족요소는 디자인, 차별성, 품질이 동일하게 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소재 14%, 활동성과 교복구성이 11%를 차지했다. ⑧ 교복의 불만족 요소는 활동성이 28%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과 품질 18%, 소재 15%, 색상 10%, 교복구성 7%, 차별성이 4%로 나타났다. ⑨ 교복가격은 113명에 해당하는 26%가 매우 비쌌, 25%가 약간 비쌌, 23%가 비쌌, 22%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2%가 약간 저렴, 2%가 저렴하다고 답했다. ⑩ 교복 사이즈 만족도에서 30%가 만족, 29%가 보통, 16%가 약간 만족, 11%가 약간 불만족, 10%가 불만족, 4%가 매우만족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표준디자인 관련 내용이다. ① 교복 표준디자인의 필요성에서 '필요하다'가 29%로 가장 높았고, '약간 필요' 21%, '보통' 17%, '매우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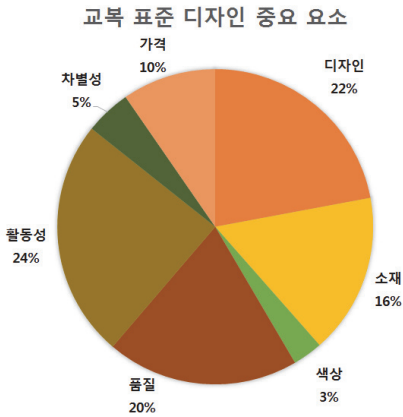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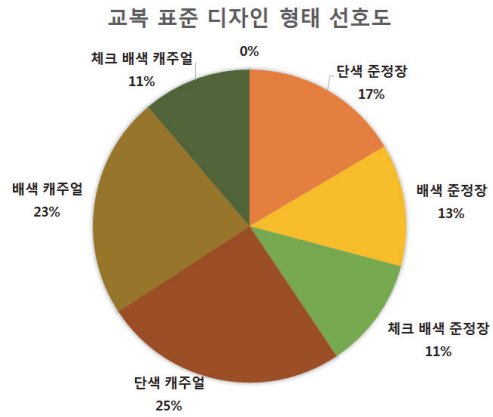
<그림 7> 브랜드 교복 구입이유



<그림 8> 기타 교복을 구매한 이유



<그림 9> 교복 표준디자인 중요 요소



<그림 10> 교복 표준디자인 형태 선호도

요'16.5%, '불필요' 6.8%, '약간 필요' 5.7%, '전혀 불필요'가 3.4%로 조사되었다. ② 교복 표준디자인 중요 요소로는 활동성이 24%로 가장 높고, 디자인 20%, 품질 20%, 소재 16%, 가격 10%, 차별성 5%, 색상이 3%이다<그림 9>. ③ 교복 표준디자인 형태 선호도는 25% 단색캐주얼, 23% 배색캐주얼, 17% 단색 준정장, 13% 배색 준정장, 11%가 각각 체크 배색준정장과 체크배색 캐주얼로 나타났다<그림 10>. ④ 교복 표준디자인 무늬 선호도는 45%가 무늬 없음, 38%가 체크무늬, 9%줄무늬, 5%가 평행이 무늬, 3%가 기하학 무늬를 선호했다. ⑤ 교복 표준디자인 선호도는 32%가 내추럴, 22%

가 푸른 계통, 18%가 검정/흰색, 17%회색 계통, 5%녹색 계통, 3%가 각각 붉은 계통과 노랑 계통으로 조사되었다. ⑥ 교복 표준디자인 구매의사는 40%가 '구매의사 있다' 라고 답했고, 38%가 보통, 22%가 '구매의사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은 현행교복 사이즈 체계의 문제점, 현행 교복의 문제점, 교복 표준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한 것에 설문 내용을 추가하여 함께 정리한 것이다.

<표 1> 설문조사의 자유 의견

	현행 교복의 문제점	교복 표준화 제안 의견	개선 방향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의 품 작음(하복 블라우스, 몸매가 드러남)</li> <li>▶ 좁은 품 활동성 저하</li> <li>▶ 치마(특히 하복) 짧음</li> <li>▶ 브랜드별 치마길이 다름</li> <li>▶ 디자인의 다양성, 개성 부족</li> <li>▶ 세련된 디자인 필요</li> <li>▶ 하복 긴바지 대신 5부나 7부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디자인</li> <li>▶ 캐주얼 디자인</li> <li>▶ 여자 재킷 길게</li> <li>▶ 치마바지 디자인</li> <li>▶ 남자 주머니 크게</li> <li>▶ 사복보다 멋진 교복</li> <li>▶ 캐주얼 교복선호, 다음으로 준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주얼과 준정장의 활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새로운 디자인</li> <li>✓ 현재트렌드 및 사용자 중심의 개선점을 반영한 디자인</li> <li>✓ 몸매가 드러나지 않아도 날씬해 보이는 편안한 실루엣</li> <li>✓ 실용적인 치마바지</li> </ul>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성 있는 원단필요</li> <li>▶ 생활복 얼룩이 잘 안 지워짐</li> <li>▶ 땀흡수, 통풍이 잘되는 소재</li> <li>▶ 하복소재 덩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복서즈 따뜻하게</li> <li>▶ (편안하고) 신축성 필요</li> <li>▶ 무늬 없는 소재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성과 신축성이 좋은 소재</li> <li>✓ 통풍, 보온 등 기능성 소재 활용</li> </ul>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밝지 않은 색</li> <li>▶ 상하의 단(동일)색, 배색, 체크, 배색 순으로 선호</li> <li>▶ 내추럴, 푸른 계통, 검정, 흰색, 회색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색과 배색 사용</li> <li>✓ 내추럴의 무난한 색상, 흰색, 검정, 회색 등 남녀가 모두 선호하는 색상 사용</li> </ul>
사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개인 체형 고려되지 않음</li> <li>▶ 사이즈 선택 폭 좁음(여분 시집 넉넉하게)</li> <li>▶ 큰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음</li> <li>▶ 허리와 바지 길이 안 맞아 벨트 함</li> <li>▶ 일반 옷 사이즈와 맞지 않음</li> <li>▶ 체형변화 고려하여 안감여유분 원단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안한 실루엣</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 유통 시 사이즈 체계를 보다 폭 넓게 사용 (예 Small Petit, 바지-Short-Long)</li> <li>✓ 바지와 치마 허리에 사이즈 조절 기능</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아리에 비해 허벅지의 폭 좁음</li> <li>▶ 박음질 약함</li> <li>▶ 재킷 실용도 떨어짐</li> <li>▶ 재킷 보온성 떨어짐</li> <li>▶ 활동성이 떨어짐</li> <li>▶ 여름반바지, 겨울은 가디건이나 후드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디자인 홍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성이 떨어지는 재킷 대신 코트를 대신할 반코트</li> <li>✓ 보온성이 뛰어나며 캐주얼한 패딩재킷</li> <li>✓ 간절기에 재킷 대신 입을 수 있는 가디건</li> <li>✓ 실용성을 더한 여름 반바지, 여학생 치마바지</li> </ul>

#### IV. 경기 중·고등학생 교복 표준디자인 개발

##### 1. 교복 표준디자인 제안

‘교복 표준디자인’이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2013년 공표한 「교복 구매 운영 요령」안내를 통해 201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교복의 권고가격은 동복 4pcs에 평균 203,084원, 하복의 상향선을 79,225원으로 하였다. 이는 전년 평균가격에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 1.7%를 더한 것이다. 2014년 초 각 시도교육청 교복 상한가격을 집계한 결과 201,076원의 안정적인

가격대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시·도별 교육청의 표준디자인 선정을 통해 교복 표준디자인이 개발될 것을 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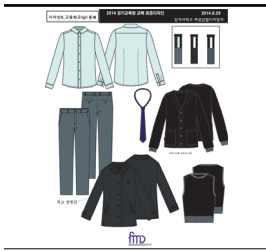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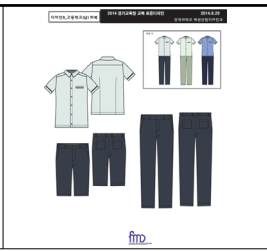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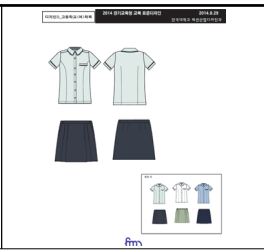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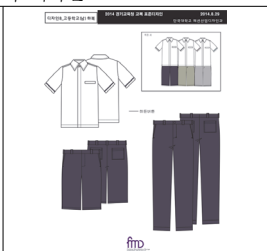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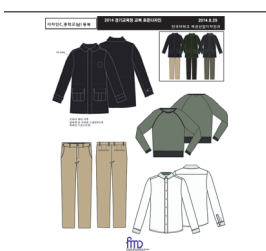







교복 표준디자인의 목적은 안정적인 가격을 위해 교복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또한 동시에 현대의 트렌드나 교복의 선호 사항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학생 신분에 적합하면서 심미성, 활동성, 기능성, 편리성 등이 충족된 디자인이면서 교복 가격의 기준치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교복 표준디자인은 남녀 동·하복 2개의 세트가 진행되었으며, 1세트 당 구성 품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표 2>.

<표 2> 경기도 교복 표준디자인 품목 사항

구분	동복(4pcs)	하복 (2pcs)	생활복 (2pcs)	비고
남	재킷, 조끼(니트/가디건), 셔츠, 바지	상의, 하의	상의, 하의 (반바지)	8PCS
여	재킷, 조끼(니트/가디건), 셔츠, 치마	상의, 하의	상의, 하의 (반바지)	8PCS

교복의 표준디자인 가격 기준은 남·여학생 동복은 동일하게 200,000원으로 상의 9만원, 하의 5만원, 조끼 3만원, 와이셔츠 혹은 블라우스 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가디건은 학생 자율에 맡긴다. 하복의 경우 남·여학생 동일하게 7만 9천원으로 상의 3만 3천원, 하의 4만 6천원이며 생활복이 2만 5천원, 반바지가 4만원으로 생활복과 반바지 구입

<표 3> 교복 표준디자인 1차

			
고등학교 교복 디자인-A			
			
고등학교 교복 디자인-B			
			
중학교 교복 디자인			
			
고등-A 생활복	고등-B 생활복	중학-A 생활복	중학-B 생활복

은 자음에 맡긴다.

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표준디자인은 선행된 설문을 통해 기획되었다. 먼저 참고로 살펴본 선행된 대구교육청이 진행한 표준디자인은 교복 재킷 대신 점퍼형 방한복이나 코트를 대체하여 학생들이 추가로 코트를 구입해야 하는 추가 비용문제를 절감하고자 했다. 하절기 또한 하복을 대신하여 개인 반바지, 체육복, 생활복 등을 활용하여 학

생 복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sup>50)</sup>

중·고등학교 디자인 A세트는 준정장 스타일이고, B세트는 캐주얼함을 가미하였다. 고등학교 교복디자인 A세트는 준정장 스타일의 반 코트형 재킷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교복디자인 B세트는 캐주얼의 편안한 집업(zip-up) 재킷을 입는 구성이다. 중학교 교복은 가디건 대신 셔츠 위에 스웨터를 입는 실루엣이 편안한 야상점퍼 형의 세미캐주얼

<표 4> 교복 표준디자인 2차

고등학교 교복 디자인-A			
중학교 교복 디자인-A			
고등학교 교복 디자인-B			
중학교 교복 디자인-B			

얼 디자인이다. 하복 역시 색상배색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많이 입었던 세일러 칼라를 작게 달아 편 하면서 캐주얼한 형태의 디자인을 진행했다. 고등학교 생활복은 여름철 폴로 보다 더 시원하도록 헨리넥(henley neck)의 편안한 캐주얼 티와 반바지 디자인이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위해 색상 배색을 달리했다. 중학교의 생활복은 하복을 대신해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 구상되었고, 고정된 플라켓 배색으로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약간의 차려입은 듯한 효과를 주면서도 편리함을 추구했다. 여학생의 치마는 치마바지 형태로 활동의 용이성을 더했다.

<표 3>은 교복 표준디자인 1차로 진행된 안이다.

<표 4>는 교복 표준디자인 2차이자 최종 진행된 디자인 안이다.

고등학교 교복 A안은 기존의 가디건 대신 편리성을 더한 집업 가디건이 있고, 치마 또한 편리성을 위해 치마바지를 디자인했다. 고등학교 교복 B안은 재킷 대신 따뜻한 패딩 점퍼를 함께 입는 디자인으로 캐주얼한 진소재의 바지와 스커트를 매치해서 입는 디자인이다. 하복의 치마도 여름철 활동성을 더해주기 위해 통이 넓은 반바지이면서 걸의 랩 형태로 치마로 보이는 디자인이다. 중학교 교복 A안 또한 집업 가디건과 더블브레스트 코트형 재킷과 발랄함을 더해주는 폴리츠스커트를 매칭 하였으며, 하복과 생활복은 상하의를 믹스&매치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제안되었다. 중학교 교복 B안은 클래식한 느낌의 짧은 재킷을 입는 디자인 세트이다. 하복의 상의는 생활복으로 대체하고 긴바지나 스커트 대신 반바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입도록 기획되었다.

## 2. 교복 표준디자인 샘플 개발

다음의 <표 5>는 2차 교복 표준디자인 샘플이다.

최종 샘플로 제작된 경기교육청 교복 표준디자인에서 사용된 원단은 고A안의 재킷은 울:80%&폴리20%(W/P)로 방모케시미어원단으로 사용했다. 동복 바지와 치마는 울:60%/폴리40%, 셔츠는 폴리:77%/레이온:40%(P/R), 조끼와 가디건은 울:50%/아크릴50%(W/A), 하복 긴바지와 치마는 울:50%/폴리:50%(W/P), 하복 반바지와 치마는 폴리44%/우레탄44%/나일론12%으로 제작되었다. 피케(pique) 티셔츠의 경우 긴팔 반팔 동일하게 모두 체온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폴리(poly100%) 제작되었다. 고B 안은 품목별로 모두 A안과 동일하게 원단이 사용되었지만, 두 아이템 패딩 재킷 겉감(폴리100%)과 동복 긴 바지의 청(Jean)원단, 여자 하복의 울:50%/폴리:50%를 사용한 것이 특이사항이다. 중학교 A안의 재킷은 울:80%/폴리:20%이고 중학교 B안의 재킷은 울80%/20%폴리를 사용했다. 그 밖에는 고등학교 A안의 사용원단이란 동일하다. 디자인개발 진행된 교육청 교복 표준디자인은 간절기에 착용할 수 있는 기능성의 집업 가디건이나 딱딱한 형태를 벗어난 패딩재킷과 통이 넓은 치마바지, 캐주얼 진의 활용 등으로 기존 교복과의 차별화를 두었다. 본 연구에서 국내 교복의 시초와 발전 과정 및 국내 교복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상적인 교복 표준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앞으로도 정형화 된 교복의 틀을 깨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편안함과 심미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교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발전 방향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표 5> 교복 표준디자인 진행 샘플



고등학교 교복 디자인-A



중학교 교복 디자인-A



고등학교 교복 디자인-B



중학교 교복 디자인-B

## V. 결론

현재의 국내 중·고등학교에서 입은 교복의 착용률이 전국 기준 약 95.6%이고 서울이 97.9%, 경기도가 97.4%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이렇듯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착용하는 현 교복시장의 현황과 구조를 이해하고,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교복현황과 구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선호 대기업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77%에 달했고, 개별구매와 공동구매는 평균 5만 1천원에서 많게는 12만7천원까지 가격차가 났다. 현황과 더불어 현행교복의 획일화된 기준 내에서의 다양성은 교복착용자의 불편함과 의견을 수렴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의 제한점은 단기간(100여일) 진행되어 선행된 설문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디자인이 개발되고 제작까지 연결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경기교육청이 표준 교복 디자인 개발을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활동성(24%)이 가장 높았고, 디자인(20%)과 품질(20%)을 고르게 중요 요소로 꼽았다. 기존 교복의 경직된 디자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최신 트렌드를 포함하면서도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능성에도 뒤지지 않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첫째, 현재 통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복에 대한 정형화된 형태가 존재했다. 교복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소재와 형태 등 기준에 선호되는 틀을 깨기가 쉽지 않았다. 둘째, 새로운 원단 및 부자재의 소싱(sourcing)에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복 제작업체가 납기일을 맞추는 등의 문제로 새로운 패턴을 뜨고 가공과정을 진행 하는 등의 시간적, 여건 적 제약이 있었다. 이에 R&D를 통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한 교복의 다양성 확보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기에 장시

간 착용하는 교복디자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주보림 (2013). 해외 진출 한국 패션 브랜드의 기업 마케팅 전략에 관한 조사 연구: 진출 유형별 SWOT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1), p.108.
- 2) 교육청 홍보담당관실 (2013. 5. 7). 2013년도 동복구매 현황 조사 결과 발표, 조간보도자료, pp.1-2.
- 3) 박민영 (2014. 10). 교복 차별을 입다, 인물과 사상 10월호, 198(-), p.151.
- 4) 임지영 (2011). 교복 구매 표준화를 위한 소비자 구매 실태 조사 연구, 복식문화연구, 19(3), pp.531-541.
- 5) 김윤희, 이진희 (2014). 중학생의 여름철 교복 및 생활복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3(5), pp.919-928.
- 6) 김하영 (2012).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교복착용 태도와 교복 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5.
- 7) 박현숙 (1994).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실태 및 선호하는 교복디자인 연구: 서울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9.
- 8) 서천천 (2012). 중국 여고생 교복 실태조사를 통한 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 교복 브랜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디자인 제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07.
- 9) 양은진, 정수진 (2013. 9). 여고생의 교복 개선 요구 및 교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3), pp.425-435.
- 10) 유경숙 (1991). 여고생의 교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pp.263-270.
- 11) 이지민 (2007).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 실태와 만족도 비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0.
- 12) 최미화 (2011). 중·고등학생의 교복변형행동과 교복 치수 맞춤새 평가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7.
- 13) 류미나 (2010). 교복의 만족도와 부분자율화에 대한 선호 비교,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5.
- 14) 문지현 (2011).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교복 디자인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2.
- 15) 박영애 (1998).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여학생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24.

- 16) 조은경 (2004). Jean소재를 이용한 여고생 교복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33.
- 17) 조진숙 (1991). 교복 디자인 개발 연구: 여고생 추동용 교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1.
- 18) 사업명: 「경기도교육청 교복 표준 디자인 제작」, 일정: 2014. 5. 16.-11. 15. 진행: 단국대학교, 책임연구교수: 최수아, 연구원: 이의뜸, 김리나, 주관: 경기도교육청[학생학부모지원과].
- 19) 박물관포털 E뮤지엄 (검색어: 교복). 자료검색일 2014. 4. 18.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t&mcwebmno=121428](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t&mcwebmno=121428)
- 20) 김연희, 배친범(2003).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교복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3(2), p.35.
- 21)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검색어: 교복), 자료검색일 2015. 5.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468&cid=40942&categoryId=31723>
- 22) 조선신사(朝鮮神社): 일제가 한국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서울 남산 중턱에 세운 신궁(신궁)이라는 가장 높은 사격(社格)을 가진 신사(神社) 총독부는 1920년 5월 27일 남산에 신사 기공식을 갖고, 5년만인 1925년 10월에 준공식을 진행했다. 총 부지 127,900여평에 공사비는 156만 4852엔이 들었고 1925년 6월 27일에 ‘조선신궁’으로 개칭했다. 일제의 참배 강요 압력으로 1930년에는 38만 6807명에서 1942년에는 264만 8365명으로 참배자가 늘었다. 일제는 1945. 8. 15. 광복 이튿날 승신식이라는 폐쇄행사를 갖고 9. 7-10. 6까지 해체작업을 하여 철수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검색어: 조선신궁), 자료검색일 2015. 5.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75635&cid=49330&categoryId=49330>
- 23)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검색어: 교복), 자료검색일 2015. 5.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468&cid=40942&categoryId=31723>
- 24) 뽀뽀: 1940년 전후 일제 말기에 일본은 국민복 착용과 뽀뽀 착용을 강요했다. 이때 전국에 보급된 뽀뽀와 카키색 국민복은 마치 모든 국민의 필수복처럼 입혀졌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검색어: 뽀뽀), 자료검색일 2015. 5. 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4357&cid=50802&categoryId=50809>
- 25) 교복자율화: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는 1983년부터 중고등학생이 교복 대신 자유복을 입을 수 있도록 교복자율화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배대학당 학생들이 처음으로 교복을 입기 시작했던 1898년 이후 85년만의 일이다. 중략... 그러나 교복자율화 시행 2년 후인 1986년 2학기 때부터 다시 복장자율화 보완조치를 채택해 학교장의 재량의 따라 교복을 입거나 자유복을 입도록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검색어: 교복자율화), 자료검색일 2015. 5.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6769&cid=40942&categoryId=31778>
- 26)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검색어: 교복), 자료검색일 2015. 5.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468&cid=40942&categoryId=31723>
- 27) 교육청 홍보담당관실. 앞의 책, pp.1-2.
- 28)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검색어: 교복), 자료검색일 2015. 5.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468&cid=40942&categoryId=31723>
- 29) 박물관포털 E뮤지엄 (검색어: 교복). 자료검색일 2014. 4. 18.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t&mcwebmno=121428](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t&mcwebmno=121428)
- 30)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검색어: 교복), 자료검색일 2015. 5.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468&cid=40942&categoryId=31723>
- 31) 김하영, 앞의 책, pp.v-vi.
- 32) Horn을 유경숙, 앞의 책, p.236에서 재인용.
- 33) 박물관포털 E뮤지엄 (검색어: 교복), 자료검색일 2014.4.18.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t&mcwebmno=121428](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t&mcwebmno=121428)
- 34) 류미나, 앞의 책, pp.52-53.
- 35) 김하영, 앞의 책, pp.47-61.
- 36) 네이버이미지 및 구글이미지, 자료검색일 2014. 7. 1. <http://image.search.naver.com>, <http://google.com>
- 37)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경기교육청에서 2014. 7. 10~7. 21에 진행
- 38) 김정래 (2009. 1. 30). 교복시장에 필요한 ‘선택과 경쟁’, 한경경제뉴스, 자료 검색일: 2015. 5. 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2911491>
- 39) 교육청 홍보담당관실. 앞의 책, pp.1-2.
- 40) 류미나, 앞의 책, p.4.
- 41) 산정기초: 203,084원=199,689(전국 평균 공동 구매 가격/‘13.4월 조사)+199,689×0.017(한국은행 ‘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교육청 홍보담당관실(2013. 9. 11).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구매 운영 요령」 안내, 조간보도자료, p.1.
- 42) 정승훈 (2014. 4. 25). 교육부 여름 교복가격 상한선 7만9225원 권고, 국민일보, 자료 검색일: 2015. 5. 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266137&code=11131300>
- 43) 교육청 홍보담당관실 (2013. 9. 11), ‘교복 구매 운영 요령’, pp.1-2.
- 44) 교육청 홍보담당관실(2014. 2. 7). ‘14년 교복(동복) 가격 안정 추세, 조간보도자료, p.1.
- 45) 박민영, 앞의 책, p.155.
- 46) 노경석 (2014. 2. 18). ‘교복값 거품빼기’ 지역섬유·패션업계 나선다, 대구 매일신문, 자료 검색일: 2015. 5. 12. [http://www.imac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723&yy=2014](http://www.imac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723&yy=2014)
- 47) 이종배 (2009. 1. 19) 공청위, 교복제조 4대업체 담합 현장조사, 인터넷한국일보, 자료 검색일: 2015. 5.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1988820>
- 48) 교육청 홍보담당관실. 앞의 책, p.5.
- 49) 경기도교육청 (2014. 10. 24). 2004경기도 교육청 표

- 준디자인 제작 최종보고서, 축전: 단국대학교 산학  
협력단, pp.22-31.
- 50) 김장중 (2014. 3. 3). 대구교육, 동복 재킷 대신 가벼  
운 외투로 착용, 아시아뉴스통신, 자료 검색일: 2015.  
5. 12. [http://www.aneusa.com/detail.php?number=62405  
4&thread=09r02](http://www.aneusa.com/detail.php?number=624054&thread=09r02)

## **The Standard School Uniform Design Developments for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of Gyeonggi Province**

**Choi, Sooah**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Merchandise Design, College of Art & Design,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In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report in 2013, 95% of middle to high schools of whole nation and 97% of schools within the Metropolitan areas (Seoul & Gyeonggi Province) have school uniforms. However, there are emerging some situations, such like high in price, big price gaps from buying together in a big group and individually. Also 4 big uniform brands are occupying about 77% of the market, and students are uncomfortable from noticing the brands of uniforms, the lack of various designs and usages of material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standard designs for Gyeonggi province middle to highschool students by the plan of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e history of school uniforms of Korea, the current situations of school uniforms and buying, and lastly the survey (by Gyeonggi Province Office Education) for 436 school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were examined. When buying uniforms people considered material, design and price. The biggest reason for buying brand uniforms was quality and material. The important factors of new standard uniform designs were comfort & activeness(24%), design(22%), quality(20%), and material(16%). The preferred design style is solid color(25%) casual and different color match of casual(20%). They also preferred semi-formal style. The Gyeonggi provincial standard school uniform designs for middle to high schooler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is research.

Key words: school uniform, school uniform design, standard design, middle & high school student